

<2020년 7월 12일 주일예배>

주제 : 주가 풀어주리라

본문 : 베드로후서 3장 8-1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주를 보내서 풀어주리라. 이에 해당되는 주변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3장까지입니다.

시대가 가면서 성경이 계속 나왔습니다. 구약성경에는 구약말씀, 신약성경에는 신약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3절 말하면 잊어버리니까 계속 기억나게 한다. 메시아가 말한 것을 계속 잃어버리니 기억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옥에서도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3장 7절이 답이에요. 답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도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24시간이 하루가 아니라 너무 엄청나서 말을 못 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 했습니다. 이 계산법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걸 따지면 압니다. 오늘 말씀에 주가 풀어준다 했습니다. 주는 풀어주고 배우는 자는 풀지 못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을 풀어보면 365000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365000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환경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종적인 때, 환경의 때는 횡적인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환경의 때가 만났을 때가 해야 할 때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봐도 맞습니다. 하나만 맞으면 안 되고 여기서 봐도 저기서 봐도 다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맞는 것을 보면 하나만 맞아도 다른 것을 보면 다 맞습니다.

아담, 하와가 잘못했을 때 다시 오는 기회는 어마어마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때 바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당세 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이치와 원리와 진리를 깨닫고 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고 기성에서는 육적 불심판, 공중 휴거를 말합니다. 근거로 육신 불심판 하셨던 소돔 땅을 말합니다. 소돔 땅은 그때의 일이고 말세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심판 받았을 때는 심판 받은 것만 생각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가 행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불심판 한다고 하면 계속 불심판 하셔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는 홍수심판 하셨고 불심판 하시지 않았습니다. 소돔 땅만 불심판 하셨지 다 불심판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구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잘못된 것이지 지구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을 심판하시지 지구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말씀의 검, 에베소서에는 말씀의 불 등 성경에는 말씀을 300가지로 비유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세 때 말씀의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